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2년 8월 19일 (금)

...(음력 7월 22일)...

Пятница

19 августа 2022г.

№ 32 (11999)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친애하는 여러분!

사할린주 정부를 대표하여 러시아 연방 국기의 날을 맞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삼색기는 300여 년 전 해군 함대와 함께 등장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역사는 러시아 해군의 위대한 승리와 지리적 발견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오늘날 그 상징의 깃발이 수백만 제곱 킬로미터의 면적에서 펄럭이고 있습니다.

국기는 국가의 영웅적 과거를 둘러싼 우리 모두를 결속시키며, 현재의 성과에 자부심을 불러일으키고, 조국의 행복을 위해 앞으로 걸어가도록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러시아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지금, 우리가 힘을 합쳐 행동하는 것은 특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국가의 이익을 수호하고, 국가의 안전과 성공적인 발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은 이런 공동의 대의에 큰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자세와 성실한 노고에 감사드리며, 새로운 성공과 건강과 모든 일에 행통하시길 기원합니다.

발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

▲ 8월 22일은 러시아 국기의 날로 기념한다.

(이예식 기자 촬영)

사할린, 전 러시아 청년포럼 <오스트로와> 개최

8월13일부터 19일까지 사할린에서 전 러시아 <오스트로와(섬들)>청년포럼이 진행되었다. 지난 13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열린 포럼 개막식에서 발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참가자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다.

포럼에 러시아 80개 지역에서 온 500여 명의 청년들이 모였다. 참가자의 절반이 사할린 주민이다.

올해 포럼의 주제는 '실질적 정책의 관리자'라는 표어 아래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기획 아이디어를 발표할 뿐만 아니라 고용주들과 직접적인 교제를 갖고, 사할린 지역에 구직 및 채용정보를 연구할 기회를 얻는다.

개막식에 러시아 연방 대통령 극동연방관구의 부전권대표 그리고리 쿠라노브가 참석하여 포럼에 참석한 청년들에게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환영사를 대독하고, 교육체계와 현대적 정신 및 애국심 개발에 대한 강연도 진행했다.

발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사할린 지역에서 다양한 기획 실현을 설명하는 영상을 상영한 후 포럼 참가자들에게 생산적인 사업을 기대했다.

"<오스트로와> 전 러시아 청년 포럼에 오

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실질적인 대표자 분들이 오셨습니다. 포럼은 여러분에게 사할린주를 소개하고, 우리의 기획들에 관심을 갖게 하고, 바로 여기 사할린에서 자신을 찾을 기회를 제공하는 가장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영상을 통해 향후 사할린이 기대하는 것을 보셨을텐데 여러분이 직접 이 기획에 참여하여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흥미로운 일자리를 찾고, 가정을 꾸리며, 집을 장만할 수 있습니다. 사할린주는 청년들을 위해 열려 있으며 모든 것이 실현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만들어진 모든 조건들은 여러분의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발레리 리마렌코가 참석자들에게 연설했다.

연방 청년사업청 마들렌 바투린 고문은 "<오스트로와>포럼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가 자신을 발휘할 기회가 있는, 개방된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 장려금 경쟁 경연만 아니라 동료와 친구들로부터의 지원 측면의 도움과 규합의 환경도 조성합니다. 각자가 그룹의 일원으로서 느끼도록 하는 게 중요하므로 '우리 함께'라는 원칙은 포럼 현장에서 아주 명확하게 실현되고 있습니다. 올해 <오스트로와>는 '사할린보다 더 크게'기획의

참가자들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제 견해로는 이상적인 결정으로서 이미 시범 현장에서 공동사업을 시행하고, 이후 다른 지역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시험적 기획을 개발하기 위함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오스트로와> 전국 청년포럼은 사할린에서 3번째 개최하고 있다. 올해 교육프로그램은 3개 방면으로 구분됐는데 애국심과 지역 개발, 관광 및 고객 서비스, 창조적 산업과 아이티(IT) 분야이다.

올해 포럼도 오프라인-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화상으로 만난 여러 지역의 대표자들이 참석해 해결 방안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기획을 제작하게 되었다. 이러한 방면의 작업은 '아무르', 마슈크', '오스트로와' 포럼에서 교육프로그램 디자이너, 게임 실무자, 중개자, 자기개발 코스 및 도시환경과 생태환경 개발자인 와르바라 셸리나가 총지휘한다.

<오스트로와> 전국 청년포럼은 사할린주 정부와 연방 청년사업청이 주최하고 있다. 참가자들을 위한 문화오락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사할린 탐방이 이뤄지며, 오후초코에 해변과 고르니 워즈드흐 종합 스포츠단지에서 축제 행사가 열렸다.

단신

사할린주, 950개 주택가 보수공사

사할린주 주요 단계의 보수작업이 완료된 가운데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많은 보수공사가 이뤄졌다. 건설업체는 계획했던 것보다 많은 430개의 주택가 보수공사를 마쳤다. 발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의 주도로 2년 연속 전례없이 많은 주택가 보수공사를 진행하여 2021년에는 700개 주택가의 웅덩이와 폐인 도로를 보수공사해, 폐인 도로구역 공사가952 곳이나 된다. 주택가 보수공사에 대한 목록은 '사할린 온라인'사이트를 통해 주민들과 '러시아 통합당'자원봉사자, 사회운동가들의 요청으로 작성됐다. 유즈노사할린스크와 노글리키, 쿠릴 지역에서도 보수공사가 완료된 가운데 9월1일까지 작업할 예정이다.

일본 측, '사할린-2' 액화천연가스 프로젝트 예전 조건으로 공급받다

'사할린-2'의 새 운영자인 '사할린스카야에네르기야' 유한회사가 이렇게 결정한 가운데 일본의 구매자 측이 예전과 같은 조건으로 액화천연가스 공급에 대한 계약을 다시 맺을 예정이다. 계약의 예전 조건은 가격, 중량, 공급 기한 등등을 말한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연료-동력 분야의 특별 경제조치에 대한 법령에 서명한 바 있다. '사할린-2' 운영자가 바뀌어 일본 정부는 이것이 사업에 어떠한 영향도 주어서는 안된다고 공표하고 이 기획에서 지분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새고려신문

2022년 하반기 신문주문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2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96루블리 92코페이카**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П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편집부)



주지사, 한인들에게 광복절 축하

8월 15일은 광복절이다. 이 명절은 한반도는 물론 전세계 한인들이 기념하고 있다. 사할린 한인들에게 큰 명절인 광복절을 기념하는 가운데 현지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5일(월)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가 공식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사할린 한인들에게 광복절 축하인사를 전했다.

"친애하는 여러분! 8월 15일 한반도의 광복절을 맞아 사할린 지역 정부를 대표하여 사할린 한인분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러시아는 이 명절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소련군의 노력으로 1945년8월 한반도가 일본 식민지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사할린 남부와 쿠릴열도가 해방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사할린으로 강제동원됐던 한인들은 사할린에 남아 사할린 지역의 독특한 문화, 전통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고, 지역 발전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사할린주는 몇 세대에 걸쳐 사할린 한인들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우호적인 다민족 가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할린 한인의 풍성한 한민족 문화와 역사적 기억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와 행복과 건강과 더 나은 내일을 기원합니다!

광복절을 축하드립니다!"

사할린 지방에서 1세들을 위한 건강관리프로그램 실시

지난 12일 사할린 지방자치체에서 1세들을 위한 '건강관리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가장 먼저 아니와시 어르신들이 이 기획의 일환으로 고급 전문의들의 상담과 약 처방을 받았다. 그리고 치매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도 체험하고, 운동요법도 익혔다. 어르신들은 이날 맛있는 밥상을 마주하며, 선물로 쌀 10킬로그램씩 받았다고 사할린 주한인협회의 텔레그램채널을 통해 전했다.

건강관리 프로그램은 사할린주한인협회, 한국 보건복지부, 한국 국제보건의료재단과 사할린주청년한인회가 실시하고 있다.

코르사코브, 광복절 기념

지난 13일(토) 광복절을 맞아 코르사코브 한인회가 거의 10년 만에 시공원에서 크게 명절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장을 찾아온 손님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 가운데 코르사코브 한인회의 소속 '미니말'타악기 팀, '아리랑'예술단, 유즈노사할린스크 '에트노스'예술학교 무용단 등이 멋진 무대를 선보였고, 태권도 시범, 팔씨름, 씨름대회, 한민족 놀이 등 많은 행사장들이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해 명절 기분을 한껏 안겨주었다.

(사진: 인가 쿠즈민스카야)



이 모 저 모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체육인의 날 기념 행사 개최

8월 13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체육인의 날 기념 행사가 개최되어 가가린 시공원에는 스포츠와 활동적인 생활방식을 즐기는 사람들을 위한 26개의 주제별 행사장이 펼쳐졌다. 공원 거의 전체 구역에서 축하 프로그램이 열린 가운데 사할린 주민들은 크로스핏(종합 체력단련)에서 체력을 점검하고, '엄마, 아빠 나 - 운동 가족' 스파르타키아다(체육대회) 진행하며, 장애물 통과 가족대회에도 참가했다.

"5세 이상의 참가자들이 통과할 수 있도록 고려한 일련의 체력 코스 20개를 준비하여, 고령세대와 아이들을 포함하고 있는 17개 팀이 이에 참가했다. 우리는 가정을 단합시키고자 가족이 함께 장애물 코스를 통과하도록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아이디어에 호응해주어서 무척 기쁘다."고 율리아 사렌코와 행사 조직자가 말했다.

또한 노인세대 스포츠인들을 위해 미니 골프 대회가 열렸고, 공무원들은 스파르타키아다에서 축구를 하고, 농구 애호가들은 매년 열리는 '오렌지볼' 경기를 치렀다. 이런 경기들 외에도 기념일 방문객들은 활쏘기 활동교실, 페인트볼, 썬-서핑, 야의 체력 단련, 사할린 스포츠연맹의 시범, 탁구, 기타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었다.

День физкультурника отпраздновал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13 август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тметили большим спортивным праздником День физкультурника. На территории городского парка имени Гагарина развернулись 26 тематических площадок для любителей спорта и активного образа жизни.

Программа празднования растянулась почти по всей территории парка. Сахалинцы проверили свои силы в кросс-фите, состязались в спартакиаде "Мама, папа, я — спортивная семья", а такж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семейном прохождении полосы препятствий.

— На тропе здоровья мы подготовили 20 испытаний, рассчитанных на прохождение участниками старше 5 лет. К нам присоединились 17 команд, в которых

есть и дети, 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Мы хотели объединить семьи, предложить им вместе пройти полосу препятствий и нас очень радует, что нашу идею поддержали столько человек, — рассказала организатор площадки Юлия Савенкова.

Для спортсменов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провели турнир по мини-гольф, госслужащие играли в футбол на спартакиаде, а любители баскетбола выявили сильнейших в ежегодных состязаниях "Оранжевый мяч".

Кроме соревнований, гостей праздника ждали мастер-классы по стрельбе из лука, пейнтболу, катанию на sup-серфах, открытые тренировки, выступ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спортивных федераций, площадки с настольными спортивными играми и многое другое,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областного минспорта.

사할린에 디지털 공연장 생겨

내년에 포로나이스크에 가상 디지털 공연장이 생길 예정이다. 연방 문화부가 개최한 경연 선정 결과에 따라 250만 루블리의 장려금을 받은 포로나이스크의 '미르' 문화오락센터가 공연장을 설치하게 된다.

디지털 공연장은 '문화' 국가 기획의 일환으로 개관 예정인 가운데 대형 사각 디지털 화면과 서라운드 사운드 음향 장비 설치로 지역 주민들은 러시아 대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클래식 음악 공연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된다. 이에 정부는 지방 주민들이 시설을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향상시킬 계획이다.

연방 문화부 경연에 60개 지역에서 211개의 신청서가 제출된 가운데 47개 지역에서 80개 문화기관들이 수상되었다고 문화부 사이트에 공지됐다.

사할린주는 예산 간 전달(무상자금협력)로 750만 루블리를 받았다. 포로나이스크의 '미르'센터 외에 경연에서 코르사코브의 '오케안' 문화오락센터, 유즈노사할린스크의 '라두가' 국민 문화센터가 수상되어 장려금을 받는다.

이 자금으로 장비 구입 및 기관 예산에서 초고속 인터넷 설비, 필요한 경우 주요 시설 수리 및 공간 재건축을 위해 사용된다. 이 계획은 내년에 시행할 예정이다.

장려금으로 클래식, 재즈 음악, 오페라, 발레, 뮤지컬, 연극 공연과 실시간 방영되는 교양 프로그램이 고화질로 전송

하는 멀티미디어 장비를 구입할 계획이라고 주 정부가 밝혔다.

'문화' 국가 기획의 일환으로 사할린주에서는 유즈노사할린스크와 홈스크 지역에 각각 디지털 콘서트홀이 개장됐다.

Виртуальные концертные залы появятся на Сахалине

В будущем году в Поронайске появится виртуальный концертный зал. Займется им местный культурно-досуговый центр "Мир", который стал обладателем денежного гранта на два с половиной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по итогам конкурсного отбора, проводившегося федеральным министерством культуры. Зал будет открыт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Культура", благодаря чему на широкоугольных экранах и с объемным звуком местные жители смогут послушать и посмотреть трансляции концертов классической музыки в крупнейших российских филармониях. Государство повышает их доступность для провинциалов.

В конкурсном отбор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60 регионов, подавших 211 заявок. Победителями признали 80 учреждений из 47 регионов, сообщается на сайте минкуль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осталось 7,5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межбюджетного трансфера. Помимо поронайского "Мира", победителями конкурса и получателями денег стали корсаковский культурно-досуговый центр "Океан"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ий центр народной культуры "Радуга". На эти средства будет закуплено оборудование, на бюджетах учреждений — обеспечение высокоскоростного интернета и, в случае необходимости,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или реконструкцией помещений.

Проект планируют реализовать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На полученные средства будет приобретено мультимедийн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которое позволит в высоком качестве транслировать концерты классической и джазовой музыки, оперу, балет, мюзиклы, театральные постановки,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программы как в прямом эфире, так и в записи, сообщает ПСО.

Ранее в рамках нацпроекта "Культур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крыли два виртуальных концертных зала —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и Холмске.

사할린의 노인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외부 견학

노인자원봉사자들을 위해 <노인들을 위한 '사할린 섬' 안톤 체호프의 책과 여행> 외부 견학이 블라디미로브카 - 나이부치 간 노선을 따라 진행됐다.

(8면에 계속)

사할린 향토박물관, 기밀 해제 문서 추가 받았다

지난 8월 15일은 일본 군국주의로부터 한반도가 해방된 광복 77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날 러시아 보안국 측에서 사할린 주향토박물관에 남부 사할린에서 일본군에 의한 공포스런 한인 학살과 관련된, 해제된 기밀문서를 전달했



다. 소비에트 군대에 의한 한인 해방의 날은 이런 문서들을 통해 사할린에서 해방된 한인들에게 있어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

사할린주 향토박물관은 1945년 8월 일본 군국주의로부터 사할린 지역 해방과 한인 디아스포라와 관련된 사할린주의 중요한 사건 연구에 따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비극적 사건들은 미즈호(포자르스코예), 카미시스카(레오니도위)와 기타 마을들에서 발생한 일본군의 한인 양민 학살이다.

사할린주 향토박물관은 1945년 8월21일 - 22일에 미즈호(현 포자르스코예 마을) 마을에서 대규모 양민 학살을 자행한 일본군의 범죄 사건에 대한 해제된 기밀문서를 이미 작년 11월에 받았다. 2021년 9월 하바롭스크 포럼 <하바롭스크 과정: 역사적 의미와 현대적 소환>이 박물관 대표들의 참석 속에 기밀문서 해제에 중요한 역할을 한 가운데 러시아 법률에 따라 기밀문서 접근 제한의 기한(75년)이 종료되어 문서 탐색작업이 계속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결과가 나왔다. 박물관 측이 1945년 8월 다른 비극적 사건과 관련된 문서들을 보안국에서 받은 것이다.

가장 중요한 문서들은 카미시스카 마을에서 일어난 비극적 사건을 언급하고 있다. 당시 일본 헌병들에 의해 한인들이 살해되었으며 그때 여러 혐의(자주 빌미를 잡아)로 체포하여 헌병대 건물에 감금했다.

이송된 문서는 범죄를 목격하고 증언을 했던 한인 이두복(쿠니모토 도후쿠) 씨에 대한 형사사건을 밝히고 있다. 범죄 증언자로서 그는 일본 헌병대에 체포된 한인 18명이 살해된 증거를 제시했다. 미즈호 마을에 대한 문서와는 다르긴 해도 목격자로부터 발생한 사건에 대해 알려진 진실한 역사적 원천이 되는 문서이다.

이전까지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은 블라디미르 니콜라예비치 그린의 책 '삶을 향해 긴 이별...(한국어 제목 '오늘도 아물지 않은 쓰라린 상처')'을 근거로 하고 있었다. 사건에 대한 세부 묘사는 작가의 예술적 상상과 허구의 인물과 사건으로 재구성되어 있다. 그의 작품은 사할린 사회에 중요하고도 영향력이 있지만 그의 작품을 근거로 이전까지 기록된 사건의 학술적 연구는 불가능했다. 카미시스카 학살 사건 자료 외에 향토박물관 학술고문서에 1945년 8월에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일본군의 방화, 살해, 파괴 행위 등 3가지 범죄사건을 기록한 다른 문서들이 추가되어 전달됐다. 이 자료 중 하나는 일본인이 간첩 활동으로 의심한 우시로(우글레고르스크 구역의 오를로위 마을)에서 한국인을 살해한 사건에 대한 자료다. 이런 문서 자료들이 남사할린과 쿠릴열도 해방 역사의 다양한 사건들을 재조명할 것이라 전망된다.

사할린주향토박물관 부장 진 울리아 역사학 박사

평화의 빵' 나눔, '나블리베이커리 카페 의정부 지점'에 감사 전달

의정부 중앙로 '나블리베이커리 카페', 8월 15일 오전 10시 이 곳에서 뜻 깊은 만남이 있었다. 전국 사할린동포연합회 권경석 회장이 이 카페 지윤주 이사를 찾은 것. 권 회장이 감사패를 수여하기 위해서였다.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사회에 '평화의 빵'으로 자애와 봉사 실천하심에 전 회원의 뜻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나블리베이커리 카페'(대표이사 이춘호) 지윤주 이사에게 권경석 회장(1942년생, 2009년 파주 당동리 정주)이 파주에서 내방하여 수여한 '감사문'이다. '평화의 빵', 정성과 봉사 정신이 배인 이름이다.

'나블리베이커리 카페'는 2년 전인 2020년 1월 의정부시 중앙로 개점 직후부터 매달 인천, 파주, 양주, 김포 지역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와 고려인 청소년과 빵을 나눠왔다. 유기농 밀가루와 천연발효종으로 빚은 바게트 소보로, 단팥빵, 치즈피자빵, 홍살빵, 인절미빵 등이다. 이에 대한 회원들의 감사 표시이다.

전국사할린동포연합회는 서울을 비롯한 25개 지역 영주 귀국 사할린동포들의 연합체로 대부분 1940년 전후 출생한 분들로 평균 연령이 80대이다. 경기도 지역에는 2009년부터 영주 귀국하여 8개 지역 인천, 안산, 김포, 파주, 양주, 오산, 남양주, 화성에 정주하고 있다. 올해 6월 전국사할린동포연합회가 출판한 '사할린귀국동포 연대기'(2010~2022년, 인문학 역음)에 의하면 2021년 수도권에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 지역별 거주 현황은 인천과 경기도 지역 김포, 양주, 파주, 남양주, 오산, 화성, 시흥 7개 지역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다.

안산(회장:주훈춘) 603명, 김포 3개 지역 통진읍(회장:최정순) 116명, 김포 솔터 2단지(회장:박정자) 93명, 3단지(회장:채신자) 92명이고,

인천 4개 지역에는 논현동 5단지(회장:문정현) 324명, 14단지(회장:김월년) 51명, 가정동(회장:김성만) 44명,삼산동(회장:이영희)29명이고,

파주 2개 지역 당동리(회장:박승의)69명 선유리(회장:이화일) 74명, 양주 (회장:강상용) 84명, 오산(회장:박영신) 73명, 남양주(회장:이수진) 47명,화성(회장:이춘기)74 시흥 4명이 살고 있다.

1998년 사할린 거주 동포 40명의 첫 모국 방문 이후, 영주귀국정책에 의해 1997년 12월 9세대 18명이 귀국하여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입주를 시작으로 3,500명이 영주 귀국하였다. 1945년 8월 15일 이전 출생자와 배우자만 귀환할 수 있었다. 2021년 12월 조사에는 2,738명이 살고 있다.

이 '평화의 빵' 나눔은 부정기적 동포들의 모임에도 함께 했다. 지난 7월 16일 전국사할린동포연합회 주관, (사)국제문화공연교류회(이사장 양평수) 주최의 '사할린동포위문공연'에 참여하여 행사를 풍성하게 한 바도 있다.

지윤주 이사는 현재 요가 강사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기회가 된다면 '평화의 요가'도 펼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2005년 사할린동포지원사업을 위해 사할린을 방문했던 전 경기북부보훈지청 이강연 지청장도 함께 했다.

(기미양, 국악신문)



재외동포재단, 홍범도장군 유해봉환 관련 카자흐스탄 고려인 초청 간담회 개최

8.16.(화)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에 기여한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장들과의 간담회 개최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곤)은 8월 16일 '제77주년 광복절 계기 국가보훈처 초청 행사'로 모국을 찾은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장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2021년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에 기여한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장들이 참석했다. 고려인협회장들은 카자흐스탄 고려인 사회 활동과 현지 현황을 소개하며 카자흐스탄 고려인 사회에 대한 재단의 관심과 배려를 요청했다.

김성곤 이사장은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아 시행한 이번 모국 방문이, 카자흐스탄 고려인 사회가 한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끼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재단은 카자흐스탄 고려인 사회에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사할린한국교육원" 2022년 9월학기 수강생 모집

1. 신청기간: 2022년 8월 16일~ 8월 31일
2. 신청희망 강좌
(1) 한국어 : 입문, 초급, 중급, 특강
(2) 문화교실 : 한국문화(중급, 초급), 필수한자(원장) 주말민속춤교실(야외,강당)
3. 수업 시작일 :2022년 9월 5일(월)
4. 문의 전화 : 50-56-96

«Центр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К» на Сахалине объявляет набор слушателей на 2022-2023 учебный год.

1. Начало записи: с 16 августа по 31 августа 2022 г.
2. Все желающие
(1)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вводный, начальный, средний, спец. лекции
(2) Уроки культуры: Культура Кореи (средний, начальный), традиционные танцы мира, весёлый корейский (занятия с директором - песни и иероглифы)
3. Начало занятий: с 5 сентября 2022 года.
4. Телефон для справок: 50-56-96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Старт медицинской программы



12 августа началась медицинская программа для первого поко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в района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ервым районом, в котором стартовала программа, стал город Анива.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для пожилых людей были проведены консультации высоко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х узкопрофильных специалистов-врачей, выписаны рецепты, согласно которым впоследствии будут переданы лекарства. Также проведен семинар по профилактике от болезни Альцгеймера и ЛФК. В завершении всех гостей ждал ужин и вручены подарки, 10 кг корейского риса, сообщает новостной Телеграмм-канал РООСК «Корейский телеграф».

*Программа проходит при поддержке Региональ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Фонд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зарубежны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Министерств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Региональной молодеж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В Корсакове отметили День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и

13 августа в городском парке Корсакова состоялся праздник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от японской оккупации.

Об этом сообщает Telegram-канал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Корсаковского района.

Гостей праздника ждали яркие выступления творческих коллективов, игры и развлечения, показательные выступления тхэквондистов, соревнования по коре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борьбе ссирим, национальные корейские игры, а также угощения, фотозона, грим-студия и многое другое.

День освобождения или День независимости Кореи — праздник, ежегодно отмечающийся в Северной и Южной Корее 15 августа. В обеих странах этот праздник является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В этот день в 1945 году капитулировавшая Япония освободила Корею от колониального правления. Праздник был введен в 1949 году.

Фото:
Инга Кузьминская



Архив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пополнился рассекреченными документами

15 августа 2022 г. мы празднуем 77-ю годовщину Дня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и от японских милитаристов. Особенно актуальным в этот день является передача недавно рассекреченных документов, имеющих отношение к страшным событиям убийств корейцев японцами на Южном Сахалине. В свете этих документов День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и советскими войсками приобретает особый смысл для корейцев, освобожденных на Сахалине.

Корейские старожилы — корейцы первого поколения — неоднократно говорили в интервью СМИ и на телевидение, что приход Красной Армии на Южный Сахалин стал для них настоящим спасением. Поводом для такого настроения служили вести, слухи и сообщения о массовых и единичных убийствах корейцев японцами в августе 1945 г. Страшные рассказы долгое время бытовал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е, пока не были подтверждены историческими документами.

В 1990-е гг. и 2000-е гг. благодаря книгам К.Е. Гапоненко «Трагедия деревни Мидзухо» и В.Н. Гриня «Разлука длиною в жизнь» сахалинское общество узнало о событиях в Мидзухо (Пожарское) и Камисиска (Леонидово) — массовых убийствах корейского мирного населения. Однако научное изучение этих страшных событий было затруднено — у исследователей не было доступа к засекреченным документа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Сахалинский областной краеведческий музей начал работу над получением этих документов.

Научный архив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в ноябре 2021 г. получил рассекреченные материалы уголовного дела японцев, которые 21–22 августа 1945 г. совершили массовые убийства мирных корейских жителей деревни Мидзухо. Важную роль в принятии решения о рассекречивании документов сыграл прошедший в г. Хабаровске в сентябре 2021 г. форум «Хабаровский процесс: историческое значение и современные вызовы», в работе которого принимали участ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музея, а также окончание сроков ограничения доступа к указанным документам по российскому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у (75 лет).

Работа по поиску документов была продолжена и вот поступили новые результаты — музею были переданы документы, относящиеся к трагическим событиям августа 1945 г. Самые важные документы касаются трагического события в деревне Камисиска, когда японскими жандармами были убиты корейцы, в тот момент арестованные по разным обвинениям (зачастую надуманным) и находящиеся в здании жандармери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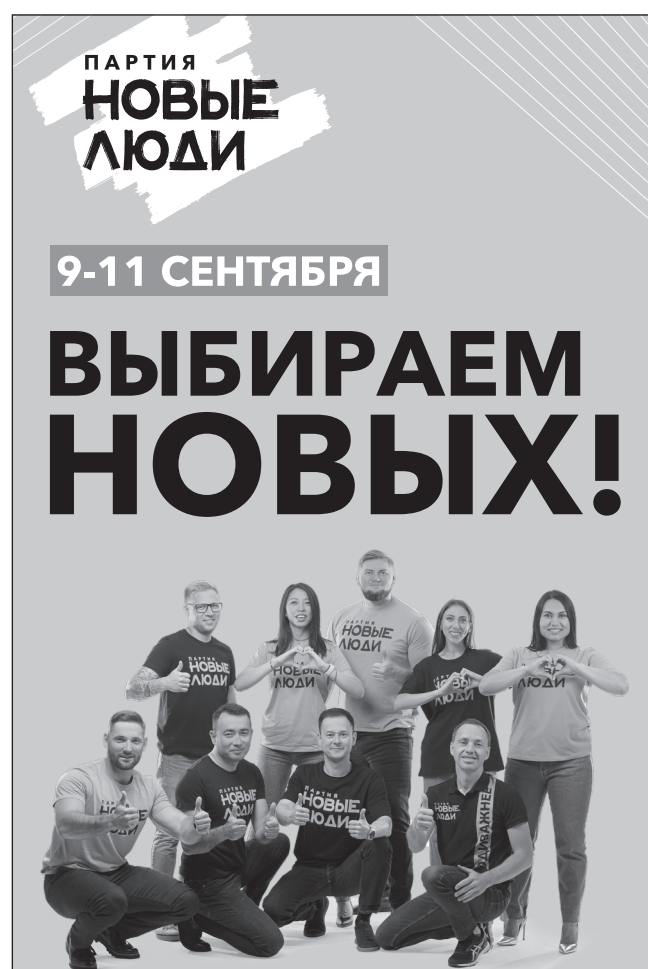
Переданные документы представляют собой уголовное дело против корейца Ли Ду Бока (Кунимото Тофуку), который невольно оказался свидетелем преступления. Он дал показания об убийстве 18 корейцев, сообщил о преступлении многие детали.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документы отличаются от документов о деревне Мидзухо, тем не менее они являются подлинным историческим первоисточником, который сообщает нам о произошедших событиях из первых рук.

Наши знания об этом событии до этого основывались на книге Владимира Николаевича Гриня «Разлука длиною в жизнь...». Подробное описание событий в этом романе перемежается художественным вымыслом, вымышленными персонажами и событиями. Труд Владимира Николаевича бесспорно важен и актуален для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щества, однако по нему сделать научное исследование описанных событий до этого момента было невозможно.

Помимо дела о резне в Камисиска, Научный архив пополнился и другими документами — четырьмя уголовными делами против японцев, совершивших разные преступления в августе 1945 г. — поджоги, убийства и диверсии. Входят в эти материалы и дело об убийстве корейца в Усиро (на территории Углегорского района), заподозренного японцами в шпион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Эти материалы позволяют пролить свет на разные события истории освобождения Южного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Юлия Дин, Сахалинский краеведческий музей

9-11 СЕНТЯБРЯ 2022 Г. - ВЫБОРЫ ДЕПУТАТ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ВОСЬМОГО СОЗЫВА



ПАРТИЯ
**НОВЫЕ
ЛЮДИ**

9-11 СЕНТЯБРЯ

**ВЫБИРАЕМ
НОВЫХ!**

**ЗА СВОИХ,
ЗА МЕСТНЫХ!
ЗА НАСТОЯЩУЮ
ОППОЗИЦИЮ!**

голосуй **ЗА**
ЛДПР ✓

Публикуется на безвозмездной основе согласно п. 2 ст. 43 Закон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 10 апреля 2008 года № 22-30 «О выборах депутат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Публикуется на безвозмездной основе согласно п. 2 ст. 43 Закон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 10 апреля 2008 года № 22-30 «О выборах депутат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Главы России и КНДР обменялись поздравлениям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Ким Чен Ын и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обменялись поздравлениями по случаю 77-й годовщины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и от японского колониального ига.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о 15 августа агентство ЦТАК, опубликовав их полные тексты. В поздравительном послании Ким Чен Ына, в частности, говорится: «Выражаю уверенность в том, что отношения дружбы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КНДР и Россией будут энергично развиваться во всех областях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договорённостью, достигнутой на встрече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в 2019 году». В своём поздравительном послании Ким Чен Ыну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отметил, что «славные традиции дружбы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заложенные в суровые дни, по-прежнему являются прочной основой для развития дружественны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двумя странами».

Президент РК обещает помочь КНДР и улучшить отношения с Японией

15 августа президент РК Юн Сок Ёль выступил с речью на церемонии по случаю 77-й годовщины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и от японского колониального господства. Она состоялась перед зданием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в столичном муниципальном округе Ёнсан-гу. Юн Сок Ёль изложил детали плана экономической помощи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если она предпримет шаги по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Он отметил, что денуклеаризация Севера необходима для устойчивого мира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в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и во всем мире.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пообещал также приложить усилия для улучшения отношений с Японией на основе совместной декларации 1998 года. Он сказал, что две страны должны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миру и процветанию в мировом масштабе, работая вместе в сферах экономики, безопасности, социальной и культурной жизни на основе взаимного уважения. «Это также поможет нам решить исторические проблемы, существующие между нашими двумя странами», - подчеркнул Юн Сок Ё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оможет жителям страны отметить праздник Чхусок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оможет жителям страны отметить осенний праздник урожая и поминовения предков Чхусок, обеспечив поставки наиболее востребованных продуктов. Об этом заявил президент РК Юн Сок Ёль, выступая 11 августа на экономическом совещании. Он добавил, что власти помогут в ликвидации последствий сильных дождей, чтобы не допустить роста цен на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ую продукцию. По словам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риложит все возможные усилия, чтобы жители страны достойно отметили праздник в семейном кругу.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будет уделено представителям уязвимых слоёв общества, в числе которых дети, одинокие пенсионеры и инвалиды. В период празднования Чхусок правительство намерено поставить на рынок рекордный объём сельхозпродукции. Всего за счёт резервов и импорта планируется поставить 230 тыс. тонн продукции 20-ти наименований наиболее востребованных продуктов. Решено также предоставить населению скидочные купоны на общую сумму 65 млрд вон (50 млн долларов). Власти намерены снизить цены на востребованные продукты до уровня празднования Чхусок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 целях предотвращения сбоев в их доставке в магазины временно снимаются ограничения на передвижение грузового транспорта в городах.

4-я Азиатская литературная премия присуждена поэту Ким Си Чжону

Лауреатом 4-й Азиатской литературной премии назван японский поэт корейского происхождения Ким Си Чжон. Об этом объявили в Центре азиатской культуры при министерстве культуры, спорта и туризма РК. По мнению жюри, поэзия Ким Си Чжона не знает границ, потому что ему удалось преодолеть рамки поляризованного мира холодной войны и национализма. Ким Си Чжон родился в Пусане в 1929 году, его детство прошло на острове Чечжудо. После участия в апрельском восстании 1948 года он эмигрировал в Японию. Его творчество получило признание не только среди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но и в литературных кругах Японии. Сборники стихов и эссе Ким Си Чжона были отмечены множеством крупных литературных премий.

Сериал «Игра в кальмара» удостоен премии Ассоциации голливудских критиков

Южнокорейский сериал «Игра в кальмара» удостоен премии Ассоциации голливудских критиков (НСА) как «лучши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сериал». На победу в данной номинации также претендовали американо-корейский сериал «Пачинко», мексиканская комедия «Акапулько», французский триллер «Люпен», испанская криминальная драма «Бумажный дом». Актёр Ли Чжон Чжэ, исполнитель одной из главных ролей в «Игре в кальмара», назван лучшим актёром мужского плана в сериале. Ассоциация голливудских критиков вручила свои награды до присуждения премии «Эмми», запланированного на сентябрь. Южнокорейский сериал претендует на победу в 14 номинациях премии «Эмми».

(RKI)

Загадочный вирус в КНДР: северяне, возможно, болели вовсе не ковидом

«Высокотемпературная лихорадка», о которой заявлял Пхеньян, может иметь совсем другую природу, нежели коронавирус.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побеждена «высокотемпературная лихорадка», об этом заявил лидер КНДР Ким Чен Ын, выступая на расширенном заседании, посвященном противоэпидемическим мерам, в котором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члены Центрального комитета Трудовой партии Кореи 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в полном составе. Напомним, «высокотемпературной лихорадкой» в КНДР называют некое заболевание, о котором стало известно 12 мая этого года. Многие эксперты считают, что речь идет о коронавирусе. Однако есть серьезные сомнения, что это действительно был ковид.

Если верить официальной версии властей КНДР, на победу над «высокотемпературной лихорадкой» им понадобилось ровно три месяца. С 29 июля в КНДР стали ежедневно сообщать о нулевых показателях новых зараженных, а в столице и ряде приграничных городов КНДР начали отменять меры социального дистанцирования.

Согласно данным КНДР, всего было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более 4 млн 770 тыс. человек с симптомами «высокотемпературной лихорадки», а умерли от нее лишь 74 человека. Это делает показатели смертности в КНДР в 75 раз ниже (если считать, что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был ковид), чем даже в Южной Корее, которая, как считается, удачно прошла через пандемию коронавируса, хотя случаи заболевания им на юге выявляются до сих пор. При этом некоторые специалисты полагают, что КНДР приуменьшила масштабы количества жертв эпидемии, но признают, что скорее всего, действительно Северная Корея смогла ликвидировать вспышку за несколько месяцев.

Зарубежные эксперты в целом согласились, что успех, скорее всего, принесли реально жесткие меры по изоляции, но некоторые поставили под сомнение официальную статистику, считая, что умерших было гораздо больше. Так, в южнокорейских СМИ со ссылкой на проведенное их медиками моделирование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ситуации были озвучены оценки, что реальное число умерших в КНДР от COVID-19 должно составлять около 50 тыс. человек. Такие большие показатели, по мнению южан, были неизбежны, учитывая плохое состояние системы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пониженный иммунитет у северокорейцев, который объясняется не самым лучшим питанием и общим ослаблением организма.

Правда, как напомнил в беседе с NEWS.ru Чон Сон Чжан, директор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Центра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Института имени короля Сечжона, необходимо учитывать, что КНДР всегда говорила лишь о людях с симптомами «высокотемпературной лихорадки», а конкретно о COVID-19 заявлялось отдельно, и последних было немного. Высока вероятность, что под определением «лихорадки с высокой температурой» скрывался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не столько COVID-19, сколько разного рода желудочно-кишечные заболевания, от которых население КНДР пострадало куда серьезнее.

В докладе южнокорейской разведки депутатам парламента Южной Кореи, напомнил Чон Сон Чжан, отмечается высокое количество больных среди детей и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инфекции через воду, что нетипично

для коронавируса.

В этой связи стоит считать ошибочным тот подход, который получил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в прессе с подачи некоторых наших медиков, когда все 4 миллиона 772 тысячи 813 северокорейцев, у которых, согласно данным властям КНДР, была температура, тут же поспешили записать в зараженные коронавирусом. Куда вероятнее, что большинство было тех, кто оказался заражен инфекцией, передающейся через воду, но не COVID-19. Если это так, то тогда показатель в 74 умерших от коронавируса может быть и верным, — отметил Чон.

Он также считает, что крайне странно было видеть на многих официальн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с участием Ким Чен Ына множество людей без масок.

Если тогда в КНДР была полномасштабная пандемия COVID-19, то это сложно объяснить. Скорее всего,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была вспышка иной инфекции, которая передается через воду, — добавил Чон Сон Чжан.

Известный кореевед, профессор сеуль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Кунмин Андрей Ланьков сказал, что «есть разные данные о количестве жертв, но точные цифры не знает никто за пределами КНДР».

Вполне может быть, что мы их никогда и не узнаем, — говорит Ланьков. — Важно, однако, другое: насколько можно судить по ситуации в городах КНДР, они действительно смогли весьма быстро справиться с коронавирусом и «высокотемпературной лихорадкой». Если бы эпидемия сейчас продолжалась, то ограничительные меры не отменялись бы в городах. А отмену мы можем подтвердить и объективно, не только на основе слов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чиновников. Похоже, что тактика тотальной изоляции районов, где были обнаружены заболевшие, оправдала себя. В других странах это реализовать не так просто из-за возможных волнений, недовольства народа, но власти КНДР могут себе позволить поступать так, как считают нужным. И в случае с инфекциями это имело эффект.

Тем временем Пхеньян заявил об очередной победе над происками мирового империализма.

Я, представляя ЦК партии 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заявляю о беспрецедентной в истории мирового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победе, осуществленной путем реализации высших чрезвычайных противоэпидемических мер, которые были приняты в целях защиты здоровья народа в связи с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м в стране нового вида коронавируса, — сказал Ким на заседании с участием ЦК Трудовой партии КНДР.

Он добавил, что в КНДР ослабляются меры по борьбе с пандемией, которые были введены 12 мая, когда официально объявили о проникновении COVID-19. Ким назвал победу над коронавирусом «особенно удивительным чудом», которое произошло «без единой вакцины».

Его сестра Ким Ё Чжон, выступая на том же заседании, рассказала, что Ким Чен Ын и сам переболел.

У него была высокая температура, но он не позволил себе ни на минуту прилечь, постоянно думая о народе, о котором ему необходимо заботиться в этой войне против эпидемии, — сказала сестра лидера КНДР.

Автор: Олег Кирьянов (News.ru)

В Сеуле проходит выставка картин Ли Чжун Сопа

12 августа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музее современно-го искусства открылась выставка работ художника Ли Чжун Сопа, которая продлится до 23 апреля будущего года. На выставке представлены 90 живописных произведений, в том числе, 80 картин из коллекции покойного председателя Samsung Group Ли Гон Хи и 10 картин из собрания музея.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зрителей привлекают такие работы Ли Чжун Сопа как «Курица и цыплята» и «Дети, играющие в воде». Ранее они не были представлены широкой публике. После долгого перерыва можно увидеть картины «Танцующая семья» и «Руки и птицы».

KBS World

"Полигранд"

Партнер,
созданный для Вас!

Тел.: 42-49-54,
42-49-89

Реклама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2022 г. — **96 руб. 92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ыполнили текущий ремонт более 950 дворов

В регионе завершился основной этап работ. Наибольший объем выполнен в островной столице. Строители перевыполнили план: вместо 413 дворов в порядок привели уже больше 430.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второй год подряд выполняется беспрецедентный объем ямочного ремонта во дворах. В 2021 году от ям и выбоин избавились в 700 дворах, в этом – рекордная планка дошла до 952.

– Опираясь на опыт прошлых лет, нам удалось построить эффективную систему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Все работы выполнялись при активном участии жителей, волонтеров и общественников. В этом году в рамках текущего ремонта во дворах нам удалось привести в порядок не только проезды, но и входные группы, там, где это было необходимо, – рассказала министр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талия Куприна.

Списки нуждающихся в ремонте придомовых территорий формировали с помощью портала «Сахалин.Онлайн», на который жители и общественники направляли свои обращения.

– Нашему двору повезло вдвойне. В прошлом году заасфальтировали проезжую часть. А в этом году мы заявили на ремонт подъезда. Управляющая компания получила субсидию из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и сделали все достаточно быстро. Теперь порядок и в доме, и на прилегающей территории. Все очень довольны, – отметил старший по дому Евгений.

Работы осталось завершить в Ногликском, Курильском районах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Дворы отремонтируют до 1 сентября.

180 школьников стали участниками первой смены центра «Авангард» на Сахалине

Лагерь развернулся на части территории учебно-тренировочного центра «Восток». Старшеклассники на протяжении трех недель будут изучать основы военной подготовки, заниматься спортом, посещать музеи. В открытии учебно-патриотического центра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Глава региона отметил, что центры «Авангард» создаются по всей стране по инициативе Президента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Участниками первой смены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стали школьники из 12 районов области, включая север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ы.

– С самого детства вы закаляете свой дух и тело, интересуетесь героическим прошлым нашей страны. Понимаете, как важно любить свою Родину. Во время этой смены вы узнаете много нового об истории Росси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Это очень важно. Потому что сегодня многие пытаются исказить прошлое. А вы должны понимать, что происходит на самом деле, и противостоять этому. Какую бы профессию вы ни выбрали в будущем, я уверен, что вы станете настоящими гражданами России,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ервая профильная смена «Потомки победителей» посвящена Дню окончани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В лагере юные патриоты пройдут серьезную подготовку и 3 сентября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в военном парад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 У нас сильный преподавательский состав, в который входят военнослужащие. На Сахалине создана прекрасная база для центра «Авангард». Школьники проживают в комфортных комнатах по 2-4 человека. Есть все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практических занятий на открытом воздухе. Полоса препятствий вдохновлена популярной военно-спортивной игрой «Гонка героев». Модульная конструкция позволяет легко устанавливать и перемещать ее, – рассказал руководитель центра «Авангард» Руслан Ситдииков.

Ребята будут изучать основы строевой и тактической подготовки, первой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ориентирование на местности, робототехнику и беспилотные летательные аппараты. В программе также – посещение музейно-мемориа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Победа» и исторического парка «Россия – моя истори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портивные соревнования, творческие вечера. В каждой смене предусмотрены выезды в водноспортивный комплекс «Аквацити».

– Занятия по стрелковой подготовке будут проходить на реальном полигоне в военной части. Ребята научатся стрелять из автомата Калашникова и из другого оружия, которое сегодня использует российская армия. Наши военнослужащие проведут занятия по основам военной подготовки с руководителями центра, педагогическим составом и самими ребятами, – отметил временно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командующего 68го армейского корпуса, полковник Дмитрий Рожков.

В «Авангарде» будут проводиться не только тематические трехнедельные смены, но и короткие смены и учебные сборы продолжительностью пять дней. По словам министра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астасии Киктевой, благодаря этому уроки ОБЖ в старших классах станут интереснее.

– По учебным стандартам предусмотрено изучение основ военной подготовки. Раньше этот материал преподавали больше теоретически. Теперь же у ребят будет замечательная возможность за короткое время пройти

курс на практике, – сказала глава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разования.

В круглогодичном режиме военно-патриотический центр заработает с 5 сентября. Планируется, что в этом году участниками «Авангарда» станут 1300 юных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а в следующем подготовку пройдут 3300 старшеклассников.

На Сахалине стартовал Всероссийский форум «ОстроVa»

С открытием участников поздрав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Форум продлится до 19 августа и объединит 500 молодых людей из 80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Почти половина из числа участников – жител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этом году форум проходит под девизом «Управленцы реальных решений». Участники не только предложат свои проектные идеи, но и получат возможность напрямую пообщаться с работодателями, изучить имеющиеся вакансии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церемонии открытия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заместитель полномочн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я Президента РФ в ДФО Григорий Куранов. Он зачитал приветственное слово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к участникам молодежного форума, а также провел лекцию о системе воспитания и развития современной духовности и патриотизма.

После фильма, рассказывающего о реализации различных проектов в регионе, продуктивной работы форумчанам пожела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Рад приветствовать вас на Всероссийском молодежном форуме «ОстроVa». Он собрал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практически всех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Это отличный шанс познакомиться вас с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ью, заинтересовать нашими проектами, дать возможность найти себя здесь – на островах. Только что на экране вы увидели, что ждет Сахалин в ближайшие годы. Вы можете сами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этих проектах. Воплотить свои идеи, найти интересную работу, создать семью, обустроить дом. Все это осуществим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 открыта для молодежи. Здесь созданы все условия, чтобы раскрыть ваш потенциал, – обратился к присутствующим в зале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ОстроVa» -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это открытая среда, где у каждого есть шанс проявить себя в полной мере. Это среда консолидации и поддержки не только со стороны государства посредством грантового конкурса, но и поддержки от друзей и единомышленников. Ведь каждому важно чувствовать себя частью команды, принцип «Мы Вместе» очень ярко реализуется на площадке форума. К тому же, в этом году «ОстроVa» принимают участников проекта «Больше, чем Сахалин». На мой взгляд, это идеальное решение, чтобы уже на опробованной площадке провести совместную работу, разработать пилотные проекты, которые затем применить в других регионах, – заметила советник руководителя Федерального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молодежи Мадлен Батурина.

Напомним, Всероссийский молодежный форум «ОстроVa» проходит на Сахалине уже в третий раз. В этом году образовате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поделена на три направления: патриотизм и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е развитие, туризм и гостеприимство, креативные индустрии и IT.

– Я узнала о форуме в соцсетях и мне показалось интересным, что можно получить новый определенный опыт от участников. Мне всего 18 лет, и я впервые в таком принимаю участие. Я получаю образование в сфере финансов и экономики и думаю, что опыт, полученный здесь, мне поможет в будущем, – рассказала участница форума из Москвы Екатерина Долгих.

Форум в этом году вновь пройдет и в онлайн-формате. Его участниками ста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азных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которые будут встречаться на онлайн-площадках, помогать в решении кейсов, проводить исследования и создавать проекты. Работу этого направления курирует Варвара Селина - дизайнер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программ, игропрактик, модератор, разработчик треков саморазвития, экологии и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на форумах «Амур», «Машук», «ОстроVa».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форума «ОстроVa» выступил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Федеральное агентство по делам молодежи. Отметим, в рамках культурно-досуговой программы для участников проведут экскурсии по Сахалину, вечерние мероприятия на территории комплекса «Горный воздух» и побережье Охотского моря.

На Сахалине оценили готовность зон отдыха у воды на старте островного купального сезона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ручил руководителям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тщательнее следить за обустройством зон отдыха у воды и содержанием их в чистоте. Первой в туристической инспекции, которую возглавил областной министр туризма Артём Лазарев, стала набережная Анивского района.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набережной в Анивском районе стало одним из наиболее ожидаемых событий у жителей острова – на эти цели муниципаль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получило субсидию из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Для популярного у сахалинцев места отдыха приобрели шезлонги, туалетные модули и кабины для переодевания.

– Наша цель – чтобы пляжи и места отдыха у воды были оснащены базовым минимумом для комфорта лю-

дей. Это туалетные модули, кабины для переодевания, шезлонги, мусорные баки и место, где можно ополоснуться пресной водой после купания, – рассказал министр туризм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ртём Лазарев.

Глава Анивского района Светлана Швец рассказала, что муниципалитет уже приступил к основному этапу работ по благоустройству пляжа.

– Планируем установить бетонные площадки, спортивные и детские комплексы, откроем фудкорт. Появится зона для фотосессий и площадка, ведущая к первой линии пляжа, чтобы лица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могли спокойно подъехать к воде, – поделилась планами Татьяна Швец.

Всего в этом году муниципальным образованиям на обустройство мест отдыха, в том числе у воды, выделено свыше 13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Работы по обустройству пляжей ведутся в Анивском, Холмском, Корсаковском и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ом районах. Восточная горнорудная компания в Шахтерске обустроила пляжную территорию с раздевалками, туалетами, лавочками и дорожками.

Для сахалинских предприятий запущены льготные инвестиционные кредиты по ставкам 3 и 4,5%

В новой программе могут участвовать малые и средние предприятия обрабатывающе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переработки сельхозпродукции, логистики и гостиничного бизнеса.

– Областн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тесно сотрудничает с Корпорацией МСП и предлагает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м и организациям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новым видом поддержки. В рамках антикризисной программы предприятия могут взять инвестиционный кредит на сумму от 50 млн рублей сроком до 10 лет для покупки необходим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или ремонта, запуска новых производств. Льготный период кредитования рассчитан на 5 лет. Ставка для среднего бизнеса в течение этого времени составит 3%, а для малого и микробизнеса – 4,5%, – поясни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тон Зайцев.

До конца 2022 года объем лимита в рамках этой программы – 50 млрд рублей выданных кредитов. Помогать с подготовкой документов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м будут специалисты Корпорации МСП.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планируется запуск специального центра на цифровой платформе МСП.РФ, гд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бизнеса смогут получить консультации. Для того чтобы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этой мерой поддержки уже сейчас,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м необходимо обратиться в один из банков-участников.

Ране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орпорации посетили Южно-Сахалинск и встретились с бизнесом.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м рассказали о финансовых мерах поддержки, обсудили получение сервисов и услуг на цифровой платформе в онлайн-формате.

Напомним,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является одним из лидеров по количеству полученных бизнесом кредитов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Корпорации МСП. Совмещение «зонтичных» поручительств корпорации и поручительств Сахалинского Фонда развития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помогла малому бизнесу региона привлечь первые 20 кредитов на 168 млн рублей.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бновляют детские площадки

12 современных площадок появилось на Сахалине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Формирование комфортной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10 игровых зон установили в Александровске-Сахалинском и по одной – в Охе и Смирных.

Всего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в этом году обустраивают 36 новых детских площадок на капитально отремонтированных дворовых территориях: 23 –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Формирование комфортной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13 – «1000 дворов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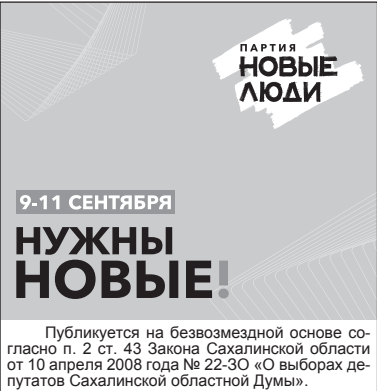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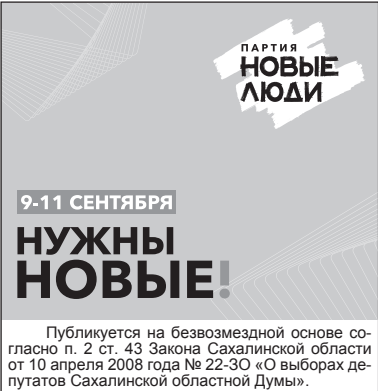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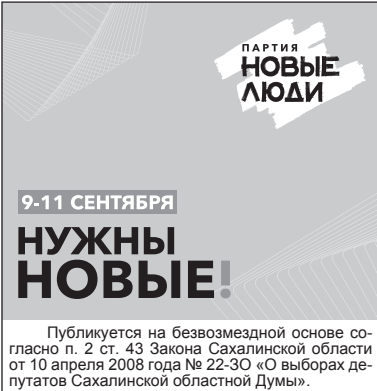
– Благодаря проекту мы получили возможность обустроить игровые зоны с современным и безопасным оборудованием для ребят. Установка игровых площадок на придомовых территориях – пожелание самих жителей. После завершения всех запланированных работ дворовые территории превратятся в комфортную зону, где будут созданы условия для тихого и активного отдыха, – отметил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ергей Федоров.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едется большая работа по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а «Формирование комфортной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в рамках нацпроекта «Жилье и городская среда». В этом году завершается капремонт 75 придомовых территорий, еще 84 – приведут в порядок по программе «1000 дворов». Помимо капитальных работ,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второй год подряд выполняется беспрецедентный объем ямочного ремонта. Текущими работами запланировано охватить более 900 придомовых территорий.

«Формирование комфортной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подразумевает также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общественных пространств, за которые проголосовали сами жители. За пять лет на островах создали и отремонтировали 125 общественных площадей, скверов, пешеходных зон, территорий возле домов культуры и библиотек.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9-11 СЕНТЯБРЯ 2022 Г. - ВЫБОРЫ ДЕПУТАТ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ВОСЬМОГО СОЗЫВА



사할린 철인 3종 경기에 사할린과 러시아 내륙에서 200명 이상 참가

체육인의 날에 제6회 '아이론사흐'(IronSakh)' 사할린 철인3종 경기가 사할린에서 개최됐다. 이에 모스크바, 모스크바주, 레닌그라드주, 무르만스크주, 아무르주, 첼랴빈스크주, 스웨르들롭스크주, 사할린주, 크라스노야르스크 변경, 연해주, 하바롭스크 변경에서 200명 이상이 참가했다.

전례대로 대규모 행사는 '레스노예 오제로' 요양-휴양소 구역에서 열렸다.

트라이애슬론 선수들은 코스를 선택하고 수영, 자전거, 달리기로 결승점에 도달해야 했다.

경기 결과 로만 트루베츠크이 선

수가 하프70.3 종목에서 가장 빨리 결승점에 도달했다. 이 코스는 수영 1,930m, 자전거 달리기 90km, 육상 달리기 21.1km로서 로만 트루베츠크이 선수는 4시간40분 3초 만에 모든 단계를 돌파했다.

여성 선수로는 하프70.3 종목에서 스웨틀라나 블라센코가 5시간47분9초 만에 코스를 통과해 1위를 차지했다. 다음 철인 경기 코스로 '올림픽' - 1.5km/40km/10km, '스프린트' - 750m/ 20km/5km, '슈퍼스프린트' - 300m /8km/2km, '근골격계 장애인 대상 슈퍼스프린트' -300m/8km/2km가 있다.

'올림픽'코스에서는 소피아 오스타니나와 예브게니 왈리에브가 최고 성적을 거두었고, 슈퍼-스프린트 코스에서는 일리아 보르보브, 위탈리 레즈니코브, 옐리자웨타 푸네펬코와, 옐레나 수르미나와 근골격계 장애인 대표로 옐레나 시벨레와가 승리를 차지했다.

사할린에서 '아이론 사흐' 철인 3종 경기는 2016년부터 시작되어 당시 첫 대회에 73명의 선수들이 참가했다. 1년 후에는 176명이 결승점에 도달했고, 2018년에는 하프70.3 코스가 추가되었으며, 이번 2022년에는 200명 이상이 참가했다.

키르기즈 한국대사, 최재형 선생 부인 묘소 참배

이원재 대사, 광복절 기념식 후 교민들과 함께
최 옐레나 페트로브나 여사 묘소 찾아

이원재 주키르기스스탄 한국대사는 8월 15일 제77주년 광복절 기념행사를 마치고 행사에 참석한 교민들과 함께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의 부인 최 옐레나 페트로브나 여사의 묘소를 참배했다.

비슈케크 시외에 위치한 세베르노이 공동 묘지에 묻힌 최 여사의 묘소를 한국대사와 교민들이 참배한 것은 그동안 소재가 밝혀지지 않았던 최 여사의 묘소가 발견된 이후 처음이다.

이원재 대사는 이날 교민들과 함께 헌화하고 묵념한 후, 최재형 선생의 파란만장한 우국충정의 일대기를 설명했고, 이 자리에 함께한 독립운동가 왕산 허위 선생의 손자 허 블라디미르(71세) 씨도 뒤늦게나마 조국이 중앙아시아

에 버려진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예우를 해줘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다.

구한말 상해 임시정부 재무부장을 지낸 최재형 선생은 사업으로 번 돈을 연해주 일대에서 진행된 항일 독립운동에 쏟아 부은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다. 그는 하얼빈 의거 직전 연해주에 머물던 안중근 의사에게 거처를 제공하고 장비와 자금을 지원했다.

한편, 최재형기념사업회와 주키르기스스탄한국대사관은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대부인 최재형 선생의 순국 102주년을 맞아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공동묘지에 묻힌 부인 최 옐레나 페트로브나 여사의 유골 국내 봉환 및 부부 합장묘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제8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 개막 "세계 평화 및 번영 위해 중추적 역할 해야"

16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서 13개국
70명 한인정치인 참가

19일까지 '모국과 세계 평화와 번영 및
한인사회 정치력 신장 도모 방안' 집중 논의

세계 각국에서 활약하는 한인 정치인이 한자리에 모여 전 세계 평화와 한인사회 정치력 신장 방안을 모색하는 '제8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엠배서더호텔에서 개막했다.

세계한인정치인협의회(연아 마틴 회장, 캐나다 연방 상원의원)가 주최하고 재외동포재단이 후원하는 이번 포럼은 'Beautiful Koreans, 평화를 꿈꾸다'를 주제로 19일까지 온, 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열린다.

올해 포럼에는 13개국 총 70명의 한인 정치인을 비롯해 국회 및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특히 캐나다 최초의 한인 의원이자 세계한인정치인협의회를 이끌고 있는 연아 마틴 캐나다 연방 상원의원, 뉴질랜드 최초 한국계 5선 의원의 멜리사 리 뉴질랜드 연방 국회의원, 지난해 시의회 역사상 최고 득표를 기록하며 당선된 김태미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시 시의원, 입양 동포로 아시아계 미국인 최초의 차관보인 셰릴 마이어스 미국 오리건주 국무차관, 최초의 한국인 여성의원인 김베라 카자흐스탄 하원의원 등 여성 한인 정치인들이 다수 참석했다. 이 밖에도 스티브 강 미국한인민주당협회 회장 겸 LA 시 도시계획위원회 커미셔너 등 차세대 유망 정치인으로 꼽히는 인물들도 눈에 띈다.

개회식은 주제 영상을 시작으로 연아 마틴 회장의 개회사와 김홍걸 의원의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연아 마틴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세계한인정치인포럼은 우리의 역사와 유산, 문화, 민족성을 바탕으로 많은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원동력이자 한인 정치인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데 중심축이 되고 있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모국과 세계 평화 번영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높아진 모국의 국력에 맞는 한인 정치력 신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개회식에 이어 'Beautiful Korean, Beautiful Politician!'을 주제로 한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의 특별강연과 외교부 장관 주최 환영 만찬이 차례로 진행됐다.

포럼 2일 차인 17일에는 주요 포럼이 진행된다.

17일 오전에 진행되는 <포럼I>에서는 '한인 정치인의 정치력 신장을 위한 방안 모색'을 주제로 각자의 도전과 성공 사례를 공유한다. 미국과 독일, 호주 지역의 참가자들이 각각의 사례를 공유한 후 자유토론이 진행된다. 좌장은 마크 김 미국 버지니아주 하원의원이 맡는다.

오후에 진행되는 <포럼II>는 1, 2부로 나누어 진행된다. 1부는 연아 마틴 회장이 좌장을 맡아 '국제사회 갈등 속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인 정치인의 역할 모색'을 주제로 집중 논의한다. 2부는 멜리사 리 의원의 발제로 '동포사회 권익 신장을 위한 한인 정치인들의 역할'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3일 차인 18일에는 대한민국전쟁기념관과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방문해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 정신과 선열들의 호국정신을 배우는 시간을 갖는다. 이어서 오후에는 <포럼III: THE 어울림 토크콘서트>를 통해 선·후배 정치인 간 의견과 경험 공유가 진행된다.

마지막 날인 19일 세계한인정치인협의회 자체 토론회가 진행된다. 이어서 진행되는 폐회식과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의 환송 만찬을 끝으로 포럼은 마무리된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재외동포재단, '2022년 한글학교 교사 온라인 연수' 시행

전 세계 50개국 450명의 한글학교 교사, 역량 제고 및 교육 네트워크 강화
1차(8월 15일~21일), 2차(8월 24일~30일)로 나눠 각 7일간 시행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곤)은 한글학교 교사 역량 제고 및 교육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2022 한글학교 교사 연수'를 시행하며, 1차 연수는 8월 15일~21일까지, 2차 연수는 8월 24일~30일까지 각각 진행한다.

이번 연수에는 전 세계 50개국 450명의 교사가 온라인으로 참여한다. 올해는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온라인 환경에서의 교육 역량 강화와 세계시민교육, 한국 역사·문화 연수에 역점을 두는 한편, 교육 현장의 애로사항을 사전 조사하여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타 지역 선생님들과의

교류 시간을 확대하여 연수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난 15일 진행된 개회식에 대륙별 한글학교협의회장과 재단 김성곤 이사장, 장소원 국립국어원장, 임형재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회장 등이 참석하여 환영과 축하의 인사를 나누었다. 이어 진행된 기조 강연에서 독립운동가 양우조, 최선화 부부의 손녀인 김현주 전 실리콘밸리 한글학교 교사가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원과 그 가족들이 꿈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한 본인의 한글학교 교사 경험담, 공립학교 교육구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며 느낀 점, 한글학교 교사의 중요성 등을 전했다. 이어 한글학교 교사들의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염원하는 응원시간을 가졌다.

김성곤 이사장은, "이번 연수의 슬로건인 '한글학교, 우리 민족을 잇고 세계를 품다'의 의미처럼, 지속 가능한 동포사회를 이루고 세계를 품는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한글학교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연수 참여와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행사는 '사할린 섬' 안톤 체호브 책 문학예술박물관의 직원들이 진행했다.

박물관 소공원 7월 꽃 심기 행사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이 견학에 참가했다. 박물관 측에서 이 견학은 사할린의 자원봉사자들의 사심없는 수고와 도움에 대한 보답의 선물이라고 전했다.

여행은 8월11일 <안톤 체호브의 눈으로 본 사할린과 사람> 전람회 견학으로 시작돼 이후, 박물관의 안락한 이송차량으로 돌린스크의 향토역사 박물관으로 향했다. 여기서 자원봉사자들은 원주민들의 생활도구들과 소비에트 시절 전시품들을 관람했다.

견학의 종점은 나이바강 어귀로 안톤 체호브가 남 사할린에서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곳이다. 이곳에서 견학 참가자들은 즐거이 바닷가를 거닐다가 몇몇 사람들은 사할린의 호박석을 발견하는 행운도 얻었다. 견학 마무리는 승마클럽 방문으로 이뤄져 여기서 누구나 말들을 쓰다듬으며, 먹이를 주기도 했다.

"체호브의 여행지에 따른 흥미로운 견학 코스에 무척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절 사할린의 삶에 대해 흥미로운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멋진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주최 측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도시와 박물관의 유익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박 야나 노인자원봉사자가 말했다.

Выездная экскурсия прошла для «серебряных» волонтеров Сахалина

Выездная экскурсия «Путешествие с книгой Антона Чехова «Остров Сахалин» прошла для «серебряных» волонтеров по маршруту Владимировка – пост Найбучи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вели сотрудники литературно-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музея книги Антона Чехова «Остров Сахалин».

Участниками экскурсии стали принимавшие участие в июльской акции по посадке цветов в сквере музея добровольцы.

Поездка является подарком за бескорыстный труд и помощь островных волонтеров, сообщили в музее.

Путешествие 11 августа стартовало с экскурсии по экспозиции «Человек и Сахалин глазами Антона Чехова». Затем комфортабельный музей-мобиль отправился в Долинский историко-краеведческий музей. Там волонтеры познакомились с предметами быта коренных народов, а также экспонатами советского периода.

Финальной точкой экскурсии стало устье реки Найбы – это конечный пункт пребывания Антона Чехова на юге Сахалина. Здесь участники экскурсии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прошли по берегу моря, а некоторым даже посчастливилось найти сахалинский янтарь. Завершилась поездка посещением конно-спортивного клуба: там все желающие смогли погладить и покормить лошадей.

«Очень благодарны за интереснейшую экскурсию по местам путешествия Чехова. Узнали много интересного о жизни Сахалина прошлых лет. Спасибо организаторам за прекрасно проведенное время! Всегда готовы трудиться на благо музея и нашего города», – высказалась «серебряный» волонтер Яна Пак. (с. 1)

(с. 1)

광복절 행사에 초대합니다!

8월 20일(토) 오전 11시 유즈노사할린스크 가가린 공원의 '코스모스'경기장에서 광복절 기념행사가 열린다. 이날 행사 프로그램에는 명절 공연, 노래자랑, 한민족 공예 활동교실, 한식 요리체험실(찜빵), 씨름축제 등을 펼친다.

행사조직위원회

Приглашаем на праздник!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риглашает сахалинцев и гостей острова на празднование 77-й годовщины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Праздник состоится 20 августа в 11.00 в городском парке имени Ю.Гагарина на стадионе «Космос»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Гостей ждет насыщенная культурно-спортивная программа с участием сахалинских творческих коллективов и ДШИ «Этнос», конкурс национальной песни, мастер-классы по народному декоративно-прикладному искусству, мастер-класс и дегустация коре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кухни: "Тим пан" - паровые пирожки с фасолью, фестиваль коре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борьбы.

Оргкомитет

КИНО

ТЕАТР

КОНЦЕРТЫ

SAKH.COM • БИЛЕТЫ

Ваш портал в мир развлечений!

Вы можете купить билеты

на сайте biletsakhcom.ru

в приложении билет.сах.ком

Google play

App Store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2-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